

# PACKAGING NEWS



## 협회 · 회원사

-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 회의
- 울촌화학, 포장재 상장기업 7월...1위
- 코오롱인더스트리, 천연물 유래 신규 플라스틱 소재 개발
- 동원시스템즈, 2분기 영업이익 256억원
- 오리온, 상반기 영업이익 6.6% 상승 '국내외 고른 성장'

## 업계

- 한국공업포장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성료
- 환경부, 기업투자 막는 킬러규제 혁파...2030년까지 8.8조 창출
- 산업통상자원부, 추석 대비 '택배용 골판지' 수급 상황 점검
- 한국미래기술교육원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 패키징' 세미나 개최
- 오투기 '친환경 포장지 적용' 확대
- CJ온스타일, 협력사에 친환경 패키징 지원 확대
- 롯데케미칼-한국콜마-연우, 친환경 화장품 패키지 개발
- 롯데마트, 친환경 포장 계란 · 샐러드 출시...녹색소비 앞장
- 사조대림, 추석선물세트 포장 플라스틱 '91톤' 절감
- 배민, 포케올데이 메뉴 주문시 친환경 다회용기로 배달



(사)한국포장협회

## 잉크분과위원회 회의

분과 운영방법 및 일정 협의...활성화에 노력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위원장 소형섭)가 지난달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분과위원회는 소형섭(일광잉크페인트(주) 대표이사) 위원장이 처음으로 주관해 진행됐다.

잉크분과위원회는 앞으로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3개월 주기로 분과회의를 진행하며 조찬, 오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분과위는 최근 잉크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회원 간 단합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보교환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업계와 외국의 동향을 파악해 회원 간 상생할 수 있는 기초로 활용하기로 했다.



▲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가 지난 8월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울촌화학

## 포장재 상장기업 7월...1위

2위는 동원시스템즈

2023년 7월 포장재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는 울촌화학, 2위는 동원시스템즈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최근 포장재 상장기업 27개 브랜드의 지난 한 달간 빅데이터 평판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 6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포장재 상장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17,099,041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소비습관을 알아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지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눈다. 포장재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조사에서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시장지수, 사회공헌지수로 분석했다. 정성적인 분석 강화를 위해서 ESG 관련 지표와 오퍼 리스크 데이터도 포함했다.

2023년 7월 포장재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10순위는 울촌화학, 동원시스템즈, 락앤락, 연우, 아세아,

2023년 07월 31일

| 순위 | 브랜드    | 참여지수    | 미디어지수   | 소통지수    | 커뮤니티지수  | 시장지수      | 사회공헌지수  | 브랜드평판지수   |
|----|--------|---------|---------|---------|---------|-----------|---------|-----------|
| 1  | 울촌화학   | 296,214 | 157,341 | 168,614 | 128,924 | 1,416,388 | 71,335  | 2,238,816 |
| 2  | 동원시스템즈 | 170,685 | 65,681  | 79,974  | 60,514  | 1,765,539 | 37,239  | 2,179,632 |
| 3  | 락앤락    | 467,995 | 272,994 | 407,902 | 336,191 | 468,626   | 143,435 | 2,097,143 |
| 4  | 연우     | 394,039 | 288,446 | 162,221 | 297,422 | 283,618   | 84,208  | 1,509,954 |
| 5  | 아세아    | 21,052  | 70,153  | 94,640  | 220,019 | 497,529   | 9,222   | 912,615   |
| 6  | 펄텍코리아  | 81,312  | 39,645  | 183,734 | 17,190  | 479,136   | 36,623  | 837,640   |
| 7  | 아세아제지  | 98,060  | 51,211  | 58,070  | 33,908  | 545,442   | 39,048  | 825,739   |
| 8  | 엠투엔    | 140,907 | 77,019  | 77,105  | 32,002  | 241,268   | 26,975  | 595,276   |
| 9  | 태림포장   | 65,543  | 40,346  | 116,909 | 35,032  | 273,571   | 19,685  | 551,086   |
| 10 | 삼양패키징  | 44,060  | 24,879  | 33,373  | 17,040  | 403,092   | 19,570  | 542,015   |
| 11 | 신대양제지  | 57,052  | 33,223  | 41,233  | 14,506  | 355,024   | 17,139  | 518,176   |
| 12 | 대영포장   | 45,352  | 32,613  | 114,584 | 68,918  | 211,438   | 8,630   | 481,535   |
| 13 | 금비     | 74,386  | 56,922  | 97,582  | 86,725  | 130,603   | 16,804  | 463,022   |
| 14 | 세하     | 54,782  | 41,686  | 69,459  | 47,392  | 114,529   | 11,927  | 339,774   |
| 15 | 한국수출포장 | 26,139  | 17,901  | 27,978  | 69,411  | 186,399   | 4,422   | 332,251   |
| 16 | 한창제지   | 48,443  | 35,212  | 42,326  | 31,577  | 117,002   | 8,550   | 283,109   |
| 17 | 삼보판지   | 14,595  | 9,981   | 19,509  | 6,251   | 225,194   | 6,955   | 282,487   |
| 18 | 한국팩키지  | 14,909  | 11,053  | 36,630  | 84,207  | 113,138   | 5,602   | 265,538   |
| 19 | 승일     | 19,682  | 27,383  | 56,864  | 46,583  | 102,319   | 4,450   | 257,281   |
| 20 | 삼화왕관   | 44,413  | 26,461  | 38,211  | 15,042  | 117,002   | 13,869  | 254,998   |
| 21 | 대림제지   | 13,304  | 9,607   | 26,282  | 55,881  | 123,957   | 6,097   | 235,129   |
| 22 | 세림B&G  | 39,756  | 19,577  | 22,988  | 8,503   | 104,792   | 11,363  | 206,979   |
| 23 | 원림     | 18,822  | 20,246  | 44,488  | 32,165  | 78,671    | 4,114   | 198,506   |
| 24 | 대륙제관   | 23,478  | 16,204  | 30,711  | 10,829  | 107,110   | 7,397   | 195,730   |
| 25 | 삼동물산   | 8,726   | 10,058  | 66,766  | 6,553   | 95,209    | 2,761   | 190,073   |
| 26 | 대양제지   | 4,030   | 5,566   | 15,618  | 22,216  | 135,240   | 2,399   | 185,070   |
| 27 | 신풍제지   | 10,174  | 11,729  | 22,867  | 19,633  | 53,323    | 1,742   | 119,468   |

▲ 2023년 7월 포장재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결과표



펄텍코리아, 아세아제지, 엠투엔, 태림포장, 삼양패키징 순으로 나타났다.

포장재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울촌화학은 참여지수 296,214 미디어지수 157,341 소통지수 168,614 커뮤니티지수 128,924 시장지수 1,416,388 사회공헌지수 71,33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238,816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브랜드평판지수 1,880,925와 비교해보면 19.03% 상승했다.

2위를 차지한 동원시스템즈는 참여지수 170,685 미디어지수 65,681 소통지수 79,974 커뮤니티지수 60,514 시장지수 1,765,539 사회공헌지수 37,23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179,632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브랜드평판지수 2,151,349와 비교해보면 1.31% 상승했다.

## 코오롱인더스트리

### 천연물 유래 신규 플라스틱 소재 개발

동성케미컬과 MOU...석유화학 플라스틱 대비 탄소배출량 50% ↓

코오롱인더스트리(대표 김영범)와 동성케미컬(대표 백진우·이만우)이 지난달 28일 ‘천연물 유래 신규 플라스틱 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 왼쪽부터 김영범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이만우 동성케미컬 대표이사.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목재 유래 바이오 모노에틸렌글리콜(Bio-MEG)을 사용해 차세대 바이오 플라스틱 페프(PEF)를 개발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동성케미컬이 바이오 모노에틸렌글리콜을 제공하고,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를 원료로 페프를 생산한다.

바이오 모노에틸렌글리콜은 농업용 토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산림에서 얻은 목재로 생산된 바이오매스 원료로 식량 자원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바이오 모노에틸렌글리콜로 만들어진 페프는 석유화학 플라스틱 페트(PET) 대비 탄소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수 있다. 내열성이 우수하고 산소와 수분 차단이 용이해 섬유, 식품 포장재,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동성케미컬은 페프를 신발소재를 비롯한 자사 폴리우레탄 제품에 적용하고,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다양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공동 개발해 나간다.

김영범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고분자 가공 기술력과 동성케미컬의 친환경 원료 개발 역량이 만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상용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우 동성케미컬 대표는 “바이오 베이스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로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천연물 기반 원료 물질 개발에 힘쓰며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동원시스템즈

### 2분기 영업이익 256억원

전년 동기 대비 13.1% ↓

동원시스템즈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실적이 매출 3348억원, 영업이익 25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달 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5%, 영업이익은 13.1% 감소했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한 43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순이익은 358억원에서 309억원으로 13.7% 줄었다. 올 상반기 매출은 7080억원에서 6622억원으로 6.5% 감소됐다.

아셈틱(무균충전음료) 사업은 실적 호조를 보였으나 알루미늄 미주 수출 감소가 부진 요인으로 꼽혔다. 동원시스템즈 관계자는 “2분기 무균충전음료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했으나 미주 시장 알루미늄 수출이 줄어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면서 “연포장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 돼 가고 있어 수익성이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원시스템즈는 지난 2018년부터 아셈틱 사업을 위해 강원 횡성에 설비를 들여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오리온

**상반기 영업이익 6.6% 상승 ‘국내외 고른 성장’**

매출 1조 3777억 - 영업이익 2114억 달성

오리온이 국내외 시장에서 스낵 제품이 고른 성장세를 보인 덕분에 올해 상반기 호실적을 거뒀다. 오리온은 올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1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했다고 지난 8월 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3777억원으로 7.6% 늘었다.

한국 법인은 매출액이 16.4% 성장한 5214억원, 영업이익은 17.5% 성장한 818억원을 달성했다. 차별화된 제품력과 영업력에 기반해 스낵, 파이, 비스킷, 젤리 등 전 카테고리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반기에도 포카칩 MAX, 꼬북칩 매콤한 맛을 비롯해 닥터유와 마켓오네이처 브랜드의 경쟁력 높은 신제품을 출시하는 한편 주요 채널의 매대 확대에 집중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중국 법인은 매출액이 1.2% 감소한 5616억원, 영업이익은 5.0% 성장한 895억원을 기록했다. 위안화 환율의 영향이 일부 있었으며, 판매물량 기준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0.5%, 6.8% 성장했다. 최대 성수기인 춘절 명절이 전년 대비 열흘가량 빨라짐에 따라 1분기에는 매출액이 소폭 감소했으나, 젤리, 감자스낵 등 매출 확대에 힘입어 2분기부터 두 자릿수 성장세로 전환했다. 하반기에도 간접영업체제 강화 및 창고형 매장 등 성장채널 영업활동에 주력해 성장세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베트남 법인은 매출액이 2.7% 성장한 2010억원, 영업이익은 9.6% 감소한 300억원을 기록했다. 땃명절 시점 차이와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도 쌀과자, 붐젤리(마이구미) 등 경쟁력 있는 신제품과 영업력을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주)대일산업**  
1980년 9월 8일 창립 43주년

**(주)대진화학**  
2014년 9월 2일 창립 9주년

**(주)아이앤티산업**  
1980년 9월 25일 창립 43주년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탕으로 매출 성장을 이어갔지만 쌀, 감자플레이크, 젤라틴 등 주요 원재료비의 부담이 지속되며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러시아 법인은 매출액이 26.6% 성장한 998억원, 영업이익은 37.6% 성장한 16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7월 트베리 신공장이 본격 가동된 이후 현지 수요에 맞춰 제품 공급량을 늘리며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제품력을 기반으로 내부 효율화를 지속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하반기에도 법인별 상황을 반영한 제품 운영 및 영업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국내외 시장 수요 증대에 적극 대응하며 ‘건강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공업포장협회

### ‘창립 20주년 기념식’

송경석 회장 “위기 극복 위해 회원사 간 정보공유로 적극 대응” 강조

(사)한국공업포장협회(회장 송경석)가 지난 8월 18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 1부 행사는 개회선언과 협회장 인사, 2023년도 우수 회원사(4개사) 및 우수 임직원 표창(9명) 시상, 세종사이버대학 유통물류학과(백소라 학과장)와 업무협약식 순으로 이어졌다.

2부 행사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퓨전국악 축하공연과 축사 및 기념사, 협회 기념영상 상영, 공로자 표창, 공업 포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선언문 제창, 기념촬영, 교류 만찬회 순으로 열렸다.

특히 이번 창립 20주년 기념식에는 일본곤포공업조합연합회(회장 타니가와 류지)와 중국포장연합회 운수포장위원회(회장 슈 웨이핑) 등 일본과 중국의 단체 대표 및 회원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공업포장협회 송경석 회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수출이 위축되고, 임금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포장비 원가가 급등하고, 과당경쟁 및 과도한 경쟁 입찰로 인해 경영 환경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회원 간 정보공유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해 함께 공생, 공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한국포장협회 임경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임경빈 초대 회장부터 현 송경석 회장까지 우리나라 전체 공업포장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왔으며, 나아가 한·중·일 수송포장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의 업적을 이뤘다”면서 “공업포장업계의 기반을 다져온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3년 8월 설립된 한국공업포장협회는 최신 포장기술 및 물류정보에 대한 교육, 수송포장기술연구소 설립, 공업포장관리사 민간자격제도 시행, 포장 표준가격 확립 및 보급, 포장 보험제도 도입 추진, 공업포장회관 건립 외에도 한중일 수송 포장기술 세미나, 포장업계 견학 프로그램 등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며 업계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 한국공업포장협회가 지난 8월 18일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 환경부

### 기업투자 막는 킬러규제 혁파...2030년까지 8.8조 창출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올 하반기까지 개정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등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2030년까지 8조8천억원 이상 경제 효과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혁파 방안은 크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한다.

우선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해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국민안전 등 환경정책 목표는 확고히 지킴은  
민간투자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

**과학기술-데이터 기반**  
'성과 중심 규제'로 전환

**구조개혁 + 관행개선**  
'법률부터 지침까지 신속 개선'

**현장 채검도 제도**  
'국민 기업의 목소리 우선 수용'

**덜어리 규제 혁신**

**1 화학물질 규제** 국민안전 확보하면서 3,000억원 이상 경제효과 유발(~'30)

- 위험비례 차등관리
  - 동해기준 완화 (0.1t → 1t)
  - 2,000억원 경제효과(~'30)
- 관리기준 차등화
  - 환경영향 평가로 안전관리 해소
- 등록비용 부담 경감
  - 예외 공개자료 구매비용 부담 완화
  - 1,000억원 효과(~'30)
- 자원생산 지원 확대(기준 → 기준+신규)
  -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2 환경영향평가** 구조개혁과 관행개선을 겸하는 내실화, 민간-지방 투자는 활성화

- 평가체계 개선
  - 간이평가 도입, 지방이양
  - 평가 부담 완화
  - 평가연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채널개선 강화
- 현장관측 혁파
  - 이의 신청, 조정청자 신청
  - 평가 결과의 재고
  - 민간-재정사업 간 차별 해소
  - 하수도 등 민간연계 투자 촉진

**핀포인트 규제혁신**

**3 첨단산업 지원** 규제개선-신단조성 지원을 통해 8.5조원 경제효과 기대(~'30년)

- 첨단산업 규제 개선
  - 디스플레이 특화고시 재정 - 연 1조원 경제효과
  - 불소 배출기준 합리화 - 연 30억 1,200억원 효과
  - 산업공정 배출수의 재이용 촉진
- 신단조성 선제 지원
  - 유인 반도체클러스터 자질있는 우수공급
  - 환경영향평가 테스트트랙
  - 첨단산업 조성 전담지원단 운영

**4 탄소중립 전환** 친환경 투자 활성화로 탄소중립 기술혁신 유도

- 탄소중립 투자 촉진
  - 배출권 이월가능행량 및 시장 참여 확대\*
  - 감축설비 지원 대상 등 확대
- 순환경제 가속화
  - 패배터리 핵심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 신산업 규제 해소로 순환경제 시장 형성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혁파한다.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천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은 강화한다.

이어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총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성 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관리원칙을 마련해 국민 안전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이 담긴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 6천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 받을 때에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에서 2030년까지 1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구조개혁과 관행개선을 통한 환경영향 검토와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기업부담을 줄여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한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이 밖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범위도 확대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 추석 대비 '택배용 골판지' 수급 상황 점검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 수급 안정 위한 협력 지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달 25일 한국제지연합회 회의실에서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택배 상자용 골판지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택배 상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골판지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골판지 수급량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판지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택배 상자용 골판지 수요(7월 기준)는 41만 톤 수준인데 비해 공급량은 44.7만 톤이며 재고량도 20만톤 가량 유지하고 있어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골판지 수요는 긴 장마로 인한 농산물 포장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022년 7월, 44.7만톤)보다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판지 주원료인 폐지도 재고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21만톤 정도로 공급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골판지 가격이 최근 하향세를 보이는 등 골판지 상자 제조 가격의 상승 요인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골판지 원지(표면지 KLB 기준) 가격은 2023년 1월 74.9만원/톤에서 2023년 7월 71.9만원/톤으로 집계됐다.

그간 제지업계는 2020년 12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참여하는 '골판지 수급 안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7월 20일에는 '포장업-제지업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박스 포장재의 수급 관리와 수요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산업부와 제지업계는 앞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골판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협력하고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미래기술교육원

###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 패키징' 세미나 개최

9월 7일~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개최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 패키징 최신 소재 개발과 글로벌 상품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달 22일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세미나를 병행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주최로 지난해 개최된 친환경 플라스틱 세미나 현장.

첫째 날인 7일에는 ‘친환경 패키징 소재 기술’을 주제로 ▲친환경 패키징을 위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규격 및 시험 방법과 인증 ▲천연 고분자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포장 소재 개발 및 응용 ▲친환경 이슈에 따른 짐작 라벨 기술 개발 동향 ▲연포장 부문 친환경 기술 및 배리어 기술 동향 ▲친환경 PET용기 생산 및 품질 평가 기준 ▲탈 플라스틱을 위한 종이 포장재 개발과 상품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의 발표가 이어진다.

둘째 날인 8일에는 바이오(생분해) 플라스틱 원료 및 소재 기술을 주제로 ▲생분해 촉매제 및 식물유를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과 상용화 방안 ▲PHA 기반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개발 및 글로벌 제품화 방안 ▲농업 분야 바이오 플라스틱 적용과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개발 동향 ▲미생물을 활용한 플라스틱 분해 기술 및 생분해 인증기준 ▲친환경 범용 바이오 플라스틱 충전 소재 개발과 제품 적용 방안 ▲바이오매스 기반의 생분해 PET 섬유 및 친환경 PET 용기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의 글로벌 상품화를 위한 해외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 적합 기준 및 인증 절차 등의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연구원 측은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가 되면서 기존의 석유 기반 제품의 생태 유해성,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낮은 경제성과,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발전과 원활한 가치사슬 구축은 물론 기술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장 생존력과 성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뚜기

### ‘친환경 포장지 적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설비도 도입

오뚜기는 친환경 포장재 적용을 확대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최근 오뚜기는 식품 포장재 자회사인 풀림P&P와 SK케미칼이 공동으로 개발한 ‘순환 재활용 페트’(CR-PET, Circular Recycle PET)를 육류소스 패키지에 적용했다. 리뉴얼된 패키지는 ▲돈까스 소스 ▲참깨돈까스 소스 ▲스테이크 소스 3종이다.

지난해 6월 잉크 사용량을 줄인 ‘플렉소’ 인쇄 설비로 친환경 포장재를 제작한 오뚜기는 현재 라면과 소스 제품에 해당 포장지를 적용하고 있다.



▲ 친환경 포장재가 적용된 오뚜기 진라면과 소스류

또한 오뚜기는 201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해 보일러 연료를 전환하고 고효율 설비를 도입했다.

2020년에는 유틸리티(용수·전력·스팀)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 2021년 폐열로 생산한 열수를 활용해 설비급기의 예열공정을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압축공기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해 대풍공장 생산동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오뚜기 측은 연간 619.4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약 284tCO<sub>2</sub>eq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전사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 롯데케미칼-한국콜마-연우

### 친환경 화장품 패키지 개발

재생 소재 용기 개발 및 적용 MOU

롯데케미칼이 한국콜마홀딩스, 연우와 함께 친환경 화장품 패키지 개발에 나선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8월 1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한국콜마종합기술원에서 한국콜마홀딩스, 연우와 재생 소재 용기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3사는 이번 협약으로 롯데케미칼의 재생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CR-PP), 폴리에틸렌(PCR-PE)을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패키지를 개발하고,



▲ 사진 왼쪽부터 롯데케미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대표, 한국콜마홍일민 안병준 대표, 연우박상용 대표.

추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초부터 풀무원, 삼성웰스토리, 세븐일레븐, LG생활건강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식품용기 및 화장품 패키지에 들어가는 재생 소재를 공급 중이다.

롯데케미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대표는 “다양한 소재 제품을 통해 화장품 및 식품, 포장백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재생 소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원 순환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제품 확장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CJ온스타일

### 협력사 친환경 패키징 지원 확대

협력사 자체 ‘ESG 역량 강화’ 목적

CJ온스타일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 협력사 30곳에 총 1억원 상당의 종이테이프 및 종이 워터팩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협력사의 자체적인 ESG 경영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력사당 종이테이프 최대 2000개, 아이스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이 워터팩 1만9000개를 공급한다.

지난 8월 23일부터 출고돼 이달인 9월 중순까지 배송될 예정이다.

협력사에 종이테이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난해 9월에도 진행됐다. 비닐 소재 대비 30% 이상 비싸 친환경 종이테이프를 도입하지 않았던 중소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CJ온스타일은 올해 종이 워터팩까지 포장재 항목을 확대했다. 분리수거가 까다로운 비닐 아이스팩과 달리 종이 워터팩은 내용물을 버리고 종이류로 배출하면 돼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CJ온스타일은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 간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주력 카테고리리와 배송 박스 등 개별 수요에 맞춰 종이테이프 또는 종이 워터팩을 제공받는다.

한편 올해 친환경 패키징 상품을 지원받는 기업은 CJ온스타일과 협력 관계가 깊으며 ESG 경영을 실천 중인 중소기업으로 각종 유아동 교구를 판매하는 ‘블루래빗’,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온누리스토어’, 소파 전문 브랜드 ‘에싸(ESSA)’ 등이다.



▲ CJ온스타일은 ESG 우수 협력사 30곳에 총 1억원 상당의 종이테이프 및 종이 워터팩을 지원한다.